

울산의료원 예타 탈락에 광주도 '난항'

광주의료원 2195억 투입 350병상 규모...시, 8월쯤 결정 예상 정부에 "경제성 한계 고려한 정책적 배려" 지속 요구 예정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광주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울산의료원은 전남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립 광주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인 광주시도 내심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건립됐거나 건립 중인 곳을 제외하면 광역 시도 가운데 광주와 울산에만 지방의료원이 없다. 광주의료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기

획재정부 재정사업 분과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쯤에 예상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그러나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를 넘기 어려운 공공의료원 특성을 고려하면 울산의료원과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울산시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정당 강은미 의원은 최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과 공공보건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당장 법률 개정이나 변경된 제도 시행이 어려운 만큼 광주시는 비용 대비 편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성의 한계를 고려한 정책적 배려도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울산의료원 사례로 미뤄보면 광주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전망도 밝지만 않은 게 사실"이라며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195억원을 들여 서구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에 350병상 규모 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폐지

첫 시상금 제외 기부금 모두 반환... "각계 의견 수렴, 시상제도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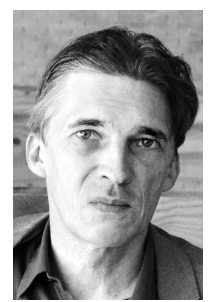
그동안 '광주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란을 낳았던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이 폐지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10일 제186차 이사회를 열고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측은 관심이 대두됐던 박서보 예술상 시상금 1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은 기지재단에 반환한다. 기지재단은 박서보 화가가 설립한 재단이다. 재단측은 최근 제기된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폐지 의견과 관련 다양한 미술계로부터 의견

을 청취했다. 아울러 기지재단측과도 협의를 지속해왔다. 재단측은 "박서보 화백이 후배 예술가들을 지원하려는 취지에 공감하여 제정한 이상이 폐지됨에 따라 향후 각계 의견을 들어 시상 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지역 예술계와 시민모임'은 "박서보 예술상은 광주정신에서 출발한 광주비엔날레의 창립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에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니콜라 부리오 선임

비평가이자 큐레이터...재단 30주년 미래 문화담론·비전 제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비평가이자 큐레이터인 니콜라 부리오(사진)가 선임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국제무대에서 해박한 미술 이론과 뛰어난 전시기획으로 주목받고 있는 니콜라 부리오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15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2024년 9월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예술감독 선임은 창설 30주년에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비엔날레 본연의 미술 담론 형성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일환으로 진행됐다. 재단 측은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비엔날레의 본질을 되짚어보고 동시대 사회 전반 현상을 진단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문화 담론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미술 기획자를 물색해왔다. 많은 후보자 중 니콜라 부리오를 선임한 것은 현재 인류가 가장 고민하는 주제를 깊고 원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와 기획력과 실행력을 겸비한 적임자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특히 니콜라 부리오의 '관계의 미학' 이론은 동시대 미술 영역에서 '관계', '매개', '참여', '상호작용' 등의 현상을 규정짓는 주요한 개념으로 회자된 바 있다. 그동안 니콜라 부리오는 언급한 '관계의 미학' (1998)을 비롯해 '포스트 프로덕션' (2002), '레디컨트' (2009), '포용: 자본세의 미학' (2020) 등 저서를 통해 미디어와 네트워크 등 기술 발전과 맞물린 상호 인간적인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기반을 둔 예술 실험과 실천 유형들을 탐구해왔다. 한편 니콜라 부리오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비엔날레이자 1995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예술 행사 중 하나인 광주비엔날레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광주비엔날레는 항상 재창조되고 있으며 30주년을 맞이해 기대감이 크게 증폭돼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유아 수족구병 원인 '엔테로바이러스' 급증

광주시, 예방수칙·위생관리 당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등의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 검출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청과 함께 지역 7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수족구병 등) 의심 환자의 가검물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사업을 수행한 결과, 1-2월 0%였던 엔테로바이러스 검출률이 3월 50%(3/6건), 4월 75%(18/24건), 5월 첫째 주 89.5%(17/19건)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엔테로바이러스 검출률이 21.4%였던 것과 비교하면 4.2배 증가한 수치다. 또 엔테로바이러스의 유전형 분석 결과 지난해에는 대부분 콕사키바이러스 A6형이었지만, 올해는 콕사키바이러스 A4형으로 크게 다른 양상이다.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이 특징인 수족구병 외에도 부균성수막염, 포진성구협염 등의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국내에 상용화된 백신이 없고,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인 만큼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의 예방수칙 준수와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확진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수포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장난감 등)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될 수 있다. 수족구병은 증상 발생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지만, 드물게 뇌수막염·뇌염·마비 증상 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투기 한미동맹 70주년 로고 부착 한미 공군이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자유의 소중함과 안보의 중요성을 국민과 공감하기 위해 한국 공군 KF-16 4대와 미국 공군 F-16 3대의 수직꼬리날개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를 부착했다. <공군 제공>

전남도, 5월 전통주 담양 하심당 '석탄주'

석탄주(사진)가 5월의남도 전통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5월을 대표하는남도 전통주로 과일의 상큼한 향과 허균을 휘감는 달콤한 맛이 일품인 담양 하심당의 '석탄주(昔呑酒)'를 선정했다. 알코올 도수 11도의 석탄주는 담양 창평면에 있는 홍주송씨 이요당파 광길 종가에서 대대로 내려온 제삿술(祭酒)로 담양의 찹쌀과 물, 누룩만을 이용해 빚은 약주다. 석탄주는 '입에 머금고 채 있고 싶을 뿐 차마 삼키기에 아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석탄주는 죽으로 밀술을 만들고 덧술 과정에서 물을 더 첨가하지 않아 발효 과정 중 상하기 쉬워 만들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주는

고향사랑기부제 담양군 답례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알려지지 않은 명주 상품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도록 시·설·설비 현대화·자동화와 품평회 개최 등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 창평면 제조장과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 최다 예산 확보

16개 섬 선정, 국비 143억원

전남도가 무인도가 될 위험에 처한 작은 섬들에 대해 식수 등 정주 필수시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섬의 질을 높여 섬주민들의 계속 거주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10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에 전국 25개 섬 중 최다인 16개 섬이 선정돼 국비 1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고흥,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군 16개 섬에는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분야별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주하기 위한 필수시설을 우선 지원해 소외된 작은 섬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은 10명 미만의 주민이 거주해 개발 대상 섬(10인 이상)에서 제외된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도와 방지를 위해 행안부에서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4년 동안 섬당 2억~10억 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1년은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급 형식으로 지원된다. 전남도는 행안부 사업 선정 이전부터 정책에서 소외된 작은 섬의 주민을 위한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다. 2016년 13개 섬, 347구 지원을 시작으로 7년간 57개 섬, 4147구 지원해 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노력했다. 특히 작은 섬에 대한 정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발생암매각공고

1. **입찰건명·발생도서 매각**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에서 발생된 토석 약 174,481㎡(자연상태 모암 기준) 단, 현장 사정에 따라 전체 수량이 변경(증,감) 될 수 있음.

구분	단위	토사	종회암	연·모반암·경암	합계	비고
수량	㎡	-	-	174,481	174,481	직입구, 자연간기구

2.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장소: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 현장사무실)
가. 현 장 설 명 회: 2023년 05월 15일 14:00
나. 입찰등록마감일: 2023년 05월 16일 14:00
다. 개 찰 일 시: 2023년 05월 16일 14:00
라. 낙 찰 자 선 정: 2023년 05월 18일 (낙찰자 개별통보)

3. **입찰방법: 입찰 매각 입찰**
가. 낙찰자 결정: 1㎡당 원석대가 최고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고가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계약대리인의 운반거리 선정 방법에 의함)
*별계운반거리(L=2.9km)를 초과하는 추가운반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추가운반비용에 대한 단가는 간담공사 표준시정단가로 선정함.

나. 입찰 참가 자격에 걸림사유가 있을 시 자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계약착수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5. **입찰 참가 자격**
가. 암매각의 경우
1) 입찰공고일 현재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산림골재채취업 또는 골재신발·파쇄업으로 등록하고 같은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사업자로써, 현상일 현재 개발행위 준공허가를 득한 반입장을 구비해 상시반입(24시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장설명서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장 및 골재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암 처리가 가능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나. 공통사항
1)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 시 국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 시 제출한 사업장(아저장 및 골재 생산시설)은 발파암 반입, 골재생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6. **입찰업체 제출서류(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가. 반입장(골재생산시설 및 아저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골재 선별·파쇄업 사업자 등록증 및 골재 파쇄 신고수리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제 1부
라. 시·군·구 관공증명서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및 재직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현장접수인 가능)
· 매 각 자: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 계약대리인: (주)태영건설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358)
· 기타 문의: 시공사 (주)태영건설 061-454-5557
김리단 (주)케이알티씨 061-454-5509

2023년 5월 11일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공사
계약대리인

합병공고 주권제출 및 채권자의제출공고

주식회사 천마종합건설(이하 "갑")과 주식회사 주우테크(이하 "을")은 2023년 5월 4일 개최된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 합병방법: (주)천마종합건설이 (주)우테크를 흡수합병
2. 합병비율: (주)천마종합건설이 합병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로 합병비율은 1:0
3.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흡수·없음
4.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자발적으로 없음
5. 합병확정일: 2023년 06월 02일

본 합병에 이르기 이전 "갑", "을"의 주권은 소지하신 주주는 주권유, 채권자는 상의를 본 공고제출일 하일부터 1개월 이내 "갑", "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1일

"갑" **주식회사 천마종합건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00, 다동 3층 대표이사 한창필

"을" **주식회사 로머스파크**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 2층(충장로5가) 사파에서 한창필

광주화교협회 임시총회 통지

광주화교협회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교민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3년 05월 23일(화요일) 15:00
1. 장 소: (주)광주화교협회 사무실 (당주 서구 평리로 69-1, 6층)
1. 참석대상: 중앙한국국적을 가진 교민으로서 20세 이상 협회 회원
1. 준 비 물: 신분증(여권인용사진 또는 영주권·운전면허증 인감 도장)
1. 만 기: 1. 임시의장 선출권
2. 선인 협회장 선출권
3. 정관 변경권

1. 연 락 처: ☎(062) 223-4164
* 협회장 중재에 의해 임명된 회원은 2023년 05월 19일 17:00까지 위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시고, 등록 시 관할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사실명령서를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인 경우 등록, 맥스, 전자 등 위 등록(발령)은 필수입니다)
* 회원님께서 본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 의결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총재: 광주화교협회 회원 69명 대표회장 송준(직인 생략) (당주지방법원 2022비합5037호 사선 신청자 69명)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몰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 ▲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